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12.19

미 증시, 매파적인 연준 위원 발언 불구 반발 매수 속 낙폭 축소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아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으나, 경기 침체 우려로 낙폭 확대. 특히 포드(-6.98%)가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가격을 상향 조정하자 전기차 및 자동차 업종이 하락 주도. 여기에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왜 그렇게 낙관적인지 모르겠다” 라고 언급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도 부담. 다만, 장 마감 앞두고 1.6% 내외 하락을 뒤로하고 재차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낙폭 일부 축소하며 마감(다우 -0.85%, 나스닥 -0.97%, S&P500 -1.11%, 러셀2000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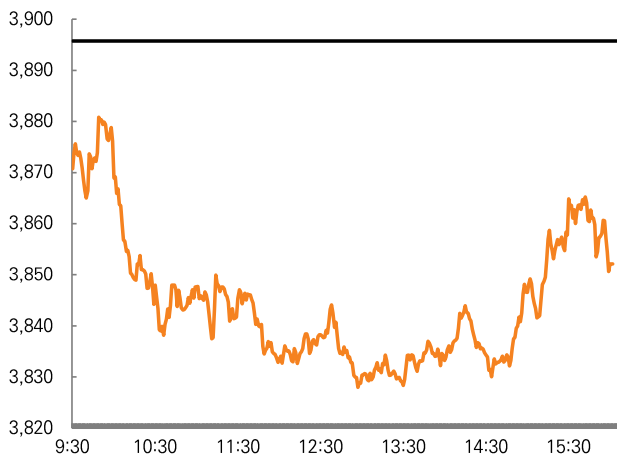
특징 종목

- 메타 플랫폼(+2.82%)은 JP모건이 그동안 하락하게 만들었던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변경, 틱톡과의 경쟁 등이 2023년에는 매출 및 수익 압박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 메타의 지분 확보 적기라고 주장하자 강세.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목표주가 11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 포드(-6.98%)는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유로 F-150 전기 픽업트럭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하락. 이는 GM(-3.91%) 등 전통적인 자동차 업종은 물론 테슬라(-4.72%), 리비안(-6.22%) 등의 약세를 부추김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1.46%, MSCI 신흥 지수 ETF는 0.2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9.47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0% 하락. KOSPI는 보험권 출발 예상.
- 미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부진했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일부 축소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더불어 BOA가 반도체 업종이 2023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점도 주목. 비록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5% 하락했으나,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더불어 연준 위원들이 최고 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데이터에 따라 관련 수치가 조절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 이는 23일 발표되는 미국 PCE 물가지수가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완화될 수 있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험권 출발이 예상되나 미 증시의 특징처럼 반발 매수세 유입 속 반등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60.02	-0.04	상해종합	3,167.86	-0.02
KOSDAQ	717.41	-0.73	홍콩항생	19,450.67	+0.42
DOW	32,920.46	-0.85	베트남	1,052.48	-0.27
NASDAQ	10,705.41	-0.97	유로스톡스 50	3,804.02	-0.83
S&P 500	3,852.36	-1.11	영국	7,332.12	-1.27
캐나다	19,443.28	-0.80	독일	13,893.07	-0.67
일본	27,527.12	-1.87	프랑스	6,452.63	-1.0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경제지표 둔화 ②포드와 자동차 ③연준 위원 발언

미국 12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47.7를 하회한 46.2로, 서비스업 PMI도 지난달 발표된 46.2를 하회한 44.4로 발표. 종합 PMI는 46.4를 하회한 44.6으로 발표돼 2년 6개월내 가장 빠른 둔화를 보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주문은 12월에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으며 신규 수출 주문은 7개월 연속 감소. 한편 고용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재고는 3개월 연속 감소. 가격 측면에서 투입 비용 상승률은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낮았고 판매 가격 상승률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완화.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GDP 성장률의 둔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했으나, 인플레이션은 하향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줌

포드(-6.98%)은 전기 F-150 라이트닝 가격을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유로 4,000달러(약 8%) 인상. 이번 인상으로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 2021년 5월 출시 이후 40% 인상. 포드는 처음 라이트닝 출시 가격이 약 4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해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전기차보다 저렴 했었음. 그렇지만, 코발트, 니켈, 리튬 같은 중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비용이 크게 증가하자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해 이제는 약 5만 6 천달러를 기록.

포드는 내년까지 15만대 판매를 주장하고 있으나, 11월말까지 1만 3,258대에 그침. 그런 가운데 가격 인상을 단행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특히 내년 경기 침체 이슈가 높아지고 있어 수요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비용 증가 이슈는 포드와 함께 여타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 이 여파로 관련 종목군의 하락을 야기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왜 그렇게 낙관적인지 모르겠다” 라고 우려를 표명. 여전히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으로 열려 있고 노동시장의 급격한 둔화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 따라서 “최고 금리는 필요하다면 11개월 이상 더 높고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해 최고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줌. 다만, 데이터가 잘 나오면 정책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최근 인플레 수치는 긍정적이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하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주장. 특히 “연준의 중앙값 전망치 이상으로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며 최고 금리는 5.1%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대체로 연준 위원들은 최고 금리가 더 높아져야 함을 언급했으며, 최고 금리 유지 기간도 과거 보다 더 오랜 기간 유지될 것임을 시사. 그렇지만, 채권 시장 참여자들과의 차이가 존재해 이러한 때 파적인 발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으나, 단기 금리는 하락해 향후 지표 결과의 중요성이 높아짐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자동차 부진 Vs. 중국 기업 견조

메타 플랫폼(+2.82%)은 JP모건이 그동안 하락하게 만들었던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변경, 틱톡과의 경쟁 등이 2023년에는 매출 및 수익 압박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 메타의 지분 확보의 적기라고 주장하자 강세. 이를 토대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목표주가를 11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 어도비(+2.99%)는 예상보다 양호한 가이드언스를 발표하자 강세. 시놉시스(+1.64%)는 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 US스틸(+5.75%)은 이번 분기 예상보다 양호한 전망을 발표하자 급등. 알리바바(+0.67%), 핀둬둬(-0.14%) 등은 상장폐지 우려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중국 기업 투자 심리는 개선

포드(-6.98%)는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유로 전기 F-150 픽업트럭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하락. 이는 GM(-3.91%) 등 전통적인 자동차 업종은 물론 테슬라(-4.72%), 리비안(-6.22%) 등의 약세를 부추김. 모더나(-6.74%)는 CEO의 주식 매도 소식에 하락. 컨설팅 회사인 액센츄어(-5.92%)는 달러 강세 등으로 내년 실적 부진 가능성이 부각되자 급락.

BOA는 2023년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에는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반도체 업종이 2023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AMAT(+0.16%), KAL(+0.20%), 엔비디아(-2.25%), 브로드컴(-0.38%), 아나로그 디바이스(+0.44%) 등을 선정. 다만,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 등으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하거나 제한적인 상승에 그침.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72	대형 가치주 ETF (IVE)	-0.98
클린테크 ETF (CTEC)	-1.75	중형 가치주 ETF (IWS)	-1.24
소매업체 ETF (XLY)	-1.87	소형 가치주 ETF (IWN)	-0.82
온라인소매 ETF (EBIZ)	-1.03	대형 성장주 ETF (VUG)	-1.36
미국 인프라 ETF (PAVE)	-0.80	중형 성장주 ETF (IWP)	-1.04
핀테크 ETF (FINX)	-1.68	소형 성장주 ETF (IWO)	-0.6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41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83
클라우드 ETF (CLOU)	-0.85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92
사이버보안 ETF (BUG)	-0.82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29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12	미국 국채 ETF (IEF)	-0.25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79	하이일드 ETF (JNK)	-0.51
바이오섹터 ETF (IBB)	-0.92	신흥국 채권 ETF (EMBD)	-0.37
로봇&AI ETF (BOTZ)	+0.14	물가연동채 ETF (TIP)	-0.54
반도체 ETF (SMH)	-0.7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4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통신	160.14	-0.11	-2.47	-3.71
소재	495.88	-0.41	-2.34	-1.35
산업재	826.54	-0.48	-1.10	-1.48
필수소비재	778.10	-0.53	-1.40	-0.09
금융	558.05	-0.74	-2.49	-4.88
IT	2,220.94	-1.27	-2.67	-3.76
에너지	640.28	-1.33	+1.72	-8.43
헬스케어	1,575.84	-1.41	-1.83	+0.64
유틸리티	355.76	-1.66	-0.55	+2.20
경기소비재	1,040.40	-1.74	-3.63	-4.96
커뮤니케이션	233.82	-2.97	-2.38	-1.8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발 매수 유입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는 1.46%, MSCI 신흥 지수 ETF는 0.2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09.47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0% 하락. KOSPI는 보험권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중국에 이어 미국의 실물 경제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며 크게 하락하 마감하자 1%대 하락 출발. 그러나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대형주 중심으로 유입되자 낙폭을 축소. 더불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 우려가 완화된 점도 긍정적. 이에 힘입어 KOSPI는 0.04%, KOSDAQ은 0.73% 하락에 그침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부진했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일부 축소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더불어 BOA가 2023년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에는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반도체 업종이 2023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점도 주목. 비록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5% 하락했으나,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더불어 연준 위원들이 최고 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파월 연준의장에 이어 델리 총재등이 결국 데이터에 따라 관련 수치가 조절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 23일 발표되는 미국 PCE 물가지수가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완화될 수 있기 때문. 이는 연준의 최고 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험권 출발이 예상되나 미 증시의 특징처럼 반발 매수세 유입 속 반등 예상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위축 지속

미국 12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47.7이나 예상치인 47.8을 하회한 46.2로 발표. 서비스업 PMI도 지난달 발표된 46.2나 예상치인 46.5를 하회한 44.4로 발표. PMI 지수 전체는 46.4를 하회한 44.6으로 발표

유로존 12월 제조업 PMI는 47.1에서 47.8로 개선되었으며 서비스업 PMI도 48.5에서 49.1로 개선. 영국의 12월 제조업 PMI는 46.5에서 44.7로 위축된 반면 서비스업 PMI는 48.8에서 50.0으로 개선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유럽 천연가스, 온화한 날씨 여파로 큰 폭 하락

국제유가는 미국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자 소비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하락. 더 나아가 연준 위원들이 최고 금리 상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 미국 천연가스는 12월 말에 온화한 날씨와 그에 따른 난방 수요 감소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 유럽 천연가스 TTF 가격은 온화한 날씨 여파와 EU의 저장이 95.9%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자 급락

달러화는 제조업 경제지표 둔화 등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경기 침체 우려 속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등으로 강세 전환. 역외 위안화는 중국 발개위가 장기적으로 중국 경기는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고, 1월에는 홍콩과의 국경을 완전히 재개하는 등 위드 코로나 정책 기대로 달러 대비 강세. 그러나 여타 상품 환율과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소폭 약세

국채금리는 미국 경제지표 둔화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상승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을 확대.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왜 그렇게 낙관적인지 모르겠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최고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단기 금리는 하락. 이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내년 경기 침체 우려를 감안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금리 결정이 수정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금은 경기 침체 우려 속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마감.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자 하락. 곡물은 옥수수과 밀은 달러 강세 및 주식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대두는 수출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이 유입되며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73%, 철근은 2.83%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4.29	-2.39	+4.60	Dollar Index	104.701	+0.14	-0.10
브렌트유	79.04	-2.67	+3.86	EUR/USD	1.0586	-0.40	+0.44
천연가스	6.60	-5.31	+5.68	USD/JPY	136.60	-0.86	+0.03
금	1,800.20	+0.69	-0.58	GBP/USD	1.2148	-0.25	-0.91
은	23.33	+0.10	-1.64	USD/CHF	0.9337	+0.57	-0.05
알루미늄	2,375.00	-0.38	-4.25	AUD/USD	0.6685	-0.27	-1.62
전기동	8,266.50	-0.33	-3.24	USD/CAD	1.3699	+0.30	+0.40
아연	3,018.00	-4.49	-6.87	USD/RUB	64.7669	+0.57	+3.59
옥수수	653.00	-0.08	+1.40	USD/BRL	5.3073	-0.13	+1.15
밀	753.50	-0.50	+2.62	USD/CNH	6.9774	-0.20	+0.19
대두	1,483.75	+0.47	-0.30	USD/KRW	1,305.40	+0.18	+0.32
커피	164.40	-4.28	+3.95	USD/KRW NDF1M	1,309.47	-0.63	+0.5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482	+3.59	-9.61	스페인	3.249	+8.80	+29.20
한국	3.350	-2.20	-13.00	포르투갈	3.165	+9.20	+30.40
일본	0.254	-0.20	-0.20	그리스	4.318	+14.00	+31.40
독일	2.152	+6.90	+21.90	이탈리아	4.297	+13.10	+45.8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